

개헌·신당 '투 트랙' 노선으로 간다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통합신당을 포함한 정계개편의 두 가지 정국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하면서 통합신당 논의가 개헌론의 파도에 휩쓸려 물러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당 지도부가 "개헌과 정계개편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개헌은 개헌이고 미래는 미래다"면서 "우리는 개헌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되 그와는 별도로 민생안정을 살피는 한편 평화 개혁세력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개헌과 정계개편의 '투 트랙' 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원혜영 전당대회준비위원장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그게 우리당의 정치일정에 어떤 영향

■ '개헌 쓰나미'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 회의

지도부 "개헌과 정계개편은 별개" 선 긋어

을 미치지 않을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우려는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 논의가 민주개혁 미래세력의 대통령 추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탈당불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주목 받은 천정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개헌 정국이 통합신당 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장 신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거나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문제와 개헌은 근본적으로 별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재성 의원도 "외형적으로는 신당문제가 개헌

정국으로 인해 묻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다음 대권을 잡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는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에 통합신당 논의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신당과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신당의 추진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음을 의식한 탓인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당과 추승용 의원은 "개헌 제안 자체가 신당흐름을 제어하고 여당을 결집시키기 위한 다목적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여당내 5개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 정국이 신당 추진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회동에 참석한 우윤근 의원은 "개헌 제안이 통합신당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야당이 우려하는 대로 대통령의 제안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경계했다.

반면 사수파 의원들은 신당문제 보다는 개헌 정국을 계기로 한나라당과의 대립전선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방향을 돌리는 데 주력했다.

사수파인 김태연 의원은 통합신당과 의원들이 개헌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모든 게 다 안된다"고 하는데 지나친 패배주의"라며 "이번에야말로 진짜 (개헌을)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광주극장과 '삼거리 극장'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동네 '삼거리 극장'에서는 추억이 담긴 극장을 떠나지 못한 귀신들이 밤마다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물론 현실의 이야기는 아니다. 영화 '삼거리 극장'(감독 천계수) 안에서다.

기발한 스토리와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진 뮤지컬 영화 '삼거리 극장'은 '주부받은 걸작'으로 꼽힌다. 영화를 본 평론가와 관객들은 열광했지만 단 1주일만에 막을 내렸다 했다. 광주 지역 스크린수는 119개. 하지만 '홍행'이라는 괴물에 발목이 잡혀 '작은 영화'는 숨쉬기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지난 5일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삼거리 극장'이 상영되고 있는 광주극장(예술영화 전용관)을 찾은 천계수 감독은 "가슴이 벅차다"는 말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150여명의 관객은 영화 개봉 당시 무대 인사를 다녔던 극장 중 가장 많은 인원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작은 예산에, 스타도 없지만 한국 영화의 답답한 부분을 깨고 싶었던", "창의적인 소재로 새로운 관객층을 만들고 싶었던" 진심이 조금은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관객 중 단 한명도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을 보고 "영화 도시는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바로 광주"라고 찬사를 던졌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밤이 원망스럽다"며 "맥주라도 한잔하자"는 말로 대화를 마친 전 감독은 태어나 가장 많은 사인을 했다.

전 감독은 영화가 시장에서 외면당할 마음이 무거웠고, 다음 영화는 어떤 걸 해야하나라는 고민에 가슴앓이가 심했다며 자신감을 갖게 해준 광주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좌절했는지도 모를 한 신인 감독에게 '희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전해준 이들은 영화를 사랑하고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광주극장은 겨울이면 극장 로비에 비치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봐야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땀방울 운풍기가 돌아가는 멀티 플렉스와는 비길데 없는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곳이다.

지난해 광주극장의 관객객수는 2만여명, 수백만명의 관객을 모은 멀티플렉스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꾸려가는 '영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쁜 소식 하나. 전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와 팬들의 성원으로 광주극장에서는 2~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삼거리 극장'을 상영하는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그에 앞서 '삼거리 극장'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다면 20일, 24일 광주극장에서 귀신들의 흥겨운 뮤지컬 공연을 즐겨보시라.

/mekim@kwangju.co.kr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식에서 의장대장 유해발굴감식단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보수 갈등 조장 언행 자제"

종교·시민사회 단체 신년모임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해와 상생을 약속하는 신년모임을 가졌다.

안병직 뉴라이프재단 이사장과 박윤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 등 진보·보수·중도 성향 단체 대표들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종교·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대

립과 갈등을 조장한 게 아닌지 반성해 본다.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일치, 통합과 상생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다 같이 사회발전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단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4가지 약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보험료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신규공무원에 부담... '소득 대체율' 등 논란

공무원들의 연금보험료(불입액)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은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미래에 공직에 들어올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주요내용

항목	현행	개선(안)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연금보수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	과세소득(단계적 확대 적용: 20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과세소득
급여산식	(재직기간×2%) + 10%	재직기간×1.7%	재직기간×1.25%
재직기간 상한	33년	40년(중년재직기간에 따라 기입기간 상한설정)	상한 없음
비용 부담률	공무원 및 정부: 각각 8.5% (과세소득기준 5.525%)	5.525%~6.55%(2008)~8.5%(2018)	4.5%~6.45%(2018)
급여산정 기초	퇴직전 3년평균보수 월액	전기평균보수(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 적용)	
지급개시 연령	· 60세('96 이후 임용자) · 50~60세(20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연금액 조정	CPI(소비자물가 인상률) + 정책조정	CPI 단계적 이행 (2008~2017: 물가7/보수3, 2018~2027: 물가8/보수2, 2028~2037: 물가9/보수1, 2038 이후 물가10/보수0)	
연금수급 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시안대로 될 경우 퇴직 및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혜 감소 폭이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정부 개혁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개혁시안은 공무원의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현행 월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늘렸다. 공무원의 총보수는 기본급과 전근수당 등을 포함하는 과세소득과 그외 비교과소득으로 이뤄져 있다.

또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부터는 65세가 되도록 했고, 연금 급여산정의 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꿨다.

반면 연금지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은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히 민간 퇴직금의 5~35% 수준인 퇴직수당의 산정방식이 민간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완전히 바뀌어 직급에 따라 민간 퇴직금 수준에 육박하는 퇴직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미래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예를 들어 지난 88년 임용된 올해 20년 차 공무원의 경우 총연금수급액과 퇴직수당을 포함한 전체 '퇴직소득'이 불과 3.7% 줄어든데 비해 미래 신규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현직 공무원보다 평균 31.2%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연금지급 폭이 급격히 줄어든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과 정부가 각각 월보수액의 1%를 불입하는 '자충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목재가공산업의 새아름 **저이리**

■ 목재주택 1호

■ 목재주택 2호

■ 목재주택 3호

■ 목재주택 4호

■ 목재주택 5호

목재가공산업의 새아름 "저이리"

· 일일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저이리"와 상회하세요!

저이리 사업분야

- 목재주택(주택, 아파트) - 목재주택
- 목재가공사업 - 목재가공사업
- 목재가공업 - 목재가공업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진흥공회

TEL: 061-337-5535

TEL: 061-334-5535